

보인다. 새로운 미래에의 희망은 소수의 기독교대학과 이에 종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 보인다. 이러한 대학들이야말로 지적 탐구의 새로운 지평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정과 자신과 안전함과 능력과 용기와 비전을 지닌 그러한 대학들인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희망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 본인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마을에 새로운 희망과 위협을 가져다 주었던 한 낯선 외래인이 행한 일에 관한 George Simmel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 낯선 외래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생활양식을 보임으로써 편리하지만 창의력이 없는, 암암리에 관행화된, 기존의 생활양식을 타파하는 위협과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대학세계는 이와 같은 낯선 사람을 수용할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제 아마도 지각없는 행동양식과 과거 습성을 저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세계는 예언자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고신대학의 교수 제위야말로 이와 같은 예언자적 과업을 수행해 나아갈 지도력을 공급하리라 믿는 바, 여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은 만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추구하는 특별한 사명으로서 오래전에 인간과 사회 그리고 온 우주에 대한 총체적인 관(Wholistic View)을 정립했다. 우리의 학문뿐 아니라 가르침에 요구되는 것은 삶 전체에 대한 기독교적 관이요,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바른 관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창조역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준다. 그리하여 우리의 동기는 강하며 이 동기는 신앙과 신뢰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둘째로, 기독교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사명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두 대학(고신대학과 칼빈대학)은 양교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이미 협의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우리 과업의 차원과 이를 위한 노력에 대한 보응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위치에 있다.

끝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개인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야와 자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속에서 세계를 재창조할 목적의식과 각오를 가지고 있다. 잠언은 우리에게 “비전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러한 교훈은 90년대를 이끌고 갈 미래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도전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지상명령에 자극력을 더 해 줄 때 (본인은 그러하리라 믿는다) 우리 기독교대학과 크리스찬 교수들에게는 빛나는 미래가 보장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열린 지성을 위하여¹⁾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안토니 디이크마(Dr. Anthony J. Diekema)*

번역: 이상규 교수**

고신대학은 지성을 여는 사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사실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에 의해 주어지는 진부한 해답들로 어수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기존의 해답들은 왕왕히 정신적 자물쇠(mental locks)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속세계의 조류를 따라 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 곧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지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오늘의 풍조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미국 지성의 폐쇄

시카고 대학의 미국인 교수인 알란 블룸(Allan Bloom)은 최근에 미국교육의 통탄스런 현실에 대한 한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 제목은 미국지성의 폐쇄(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인데, 이 책은 미국의 고등교육과 오늘날 북미의 여러 대학과 종합대학교에 등록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통찰력 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블룸교수는 미국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는가 혹은 독서량의 감소등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텔레비전이나 영화가 책을 대체시켜 버린 점을 통분히 여기고 “양서를 읽지 못함으로 상상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신념을 강화시킨다”(p. 64)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학생들이 듣는 음악, 특히 록(Rock)음악에 대하여 통렬하고도 광범위한 분석을 하면서 철학자 블룸은 그것이 “야만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그 주요 주제들은 “섹스, 증오와 저속한 것, 형제애에 대한 위선적인 언어”(p. 74) 등을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 록음악이 “창의력을 파괴하고……교양교육의 본질인 예술과 사상에 대하여 사려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아주 어렵게 한다”(p. 79)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 미국 칼빈대학 학장

** 고신대학 신학과 부교수

1) 로마서 12장 1~11절에 기초함. 이 논문은 칼빈대학 학장인 디이크마 박사가 고신대학에서 행한(1990년 3월 27일) 강연, About Opening Minds를 번역한 것임.

니다. 오늘날의 미국 대학들에 대한 블룸교수의 통찰력 있는 평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찰을 정당화 해주는 두개의 연결된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첫째로 그는 대학들이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도덕적 무지(illiteracy)를 부지중에 고양시켰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미국의 대학이 도덕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전제를 증진시켰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진실(moral truth)에 대한 계속적인 탐구에 기초한 합리적인 혹은 궁극적인 행동의 표준을 따르기 보다는 개인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상대주의(relativism), 곧 모든 사상과 가치는 나름대로의 동등한 가치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관념은 미국의 대학에서 현저한 입장이 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광적인 개방성(demented openness)이 대학이 숭상하는 유일한 도덕적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이를테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빌 4:8) 등과 같은 도덕적 탁월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나, 선(善)이나 진리, 미(美)에 대한 칸트의 관념 등은 모두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비평적 평가도 없고, 이념체계에 대한 차이도 없고 합당한 선택도 없습니다. 어떤것이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블룸교수는 이 상대주의는 건전한 교양교육과 학문을 기술교육과 직업훈련으로 대체하려는 고등교육기관의 시도에서 나왔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즉 그는 사고하는 것을 배우는 교육이 기술을 배우는 교육으로 변해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호관련된 결론의 결과를 블룸박사는 “미국지성의 폐쇄”라고 말합니다.

미국 대학들이 각이한 가치와 문화, 이념들에 대해서 문을 연것(opening)은 이런 것들에 대해 동일한 가치를 두는 도덕적인 상대주의와 짝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부지불식간에 미국 지성을 닫아버리는(closing)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개방성이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다양한 해답들을 탐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답하지 아니하려는 구실”이라고 블룸은 말합니다. 견해의 상이성(相異性)은 한 때 어떤 사상이 참되고 선하며 어떤 것이 거짓되고 악한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의문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지성은 닫혀졌다고 블룸은 말합니다. 대개방(Great opening)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은 대폐쇄입니다. 도덕 교육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블룸은 도덕교육은 미국대학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이해되고 있는 개방성이란 무엇이든 가장 강한 것에 굴복하는 길이거나 세속적 성공에 대한 숭배인데 이것이 바른 원리인것 처럼 보인다. 따라서 비타협적으로 인문교육(Humane learning)을 표방하는 대학은 필연적으로 폐쇄적이고 완고한 것 처럼 보여야만 한다. 만약 개방성이라는 것이 “세류를 따르는 것”(go with the flow)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현실에 대한 적응이다. 참된 개방성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케 하는 모든 마력에 대한 폐쇄를 의미한다. (p. 41-42)²⁾

2) Allan Bloom,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Simon & Schuster, 1987.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종류의 폐쇄는 어떠한 유형의 사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상 그것은 교양 교육의 정반대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반론 바로 그것입니다.

오도된 “개방(openness) 개념의 맥락에서 볼 때 본인은 고신대학이 비타협적으로 인문교육을 표방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폐쇄되고 완고한 것 처럼 보이게 하는 관습적인 평가의 기준에서 볼 때도 그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의미와 목적등에 대해 탐구하고 해답을 시도하고 있으며,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른 선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여러분의 지성을 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권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박식하고 개방적이고 열린 지성(open minds)은 도덕적 선택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는 말은 바울의 기록들에 부단히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택의 삶, 즉 옳은 판결을 위한 근본적인 도구가 되는 이성과 이해를 요구하는 삶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와 성령의 부단한 역사를 통해 우리의 지성을 열고 재구성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선과 악, 의와 불의, 정의와 부정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주 실천적인 사람이었으며 또한 건전한 학습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헌신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선물로 주신 이성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탁월한 인재였으며 예수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사로잡기 전에는 특출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지성의 개방과 재구성의 실천적인 중요성, 그리고 분명한 선택을 할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우리를, 올바른 선택의 길에 이르도록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연마시킬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지성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부단히 열려지고 우리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적합하게 재구성하는데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상대적인 도덕성(Relative morality)이나 어떤 정도의 인간중심적(person-centered) 윤리도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윤리로 부릅니다. 바울의 부름은 선택하는 것인데 첫째로는 이세상의 방식을 내어 버림으로써이며,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를 향하신 그의 목적에 기초한 윤리적 이상에 우리의 마음을 개방함으로써입니다. 그와 같은 이상을 구체화 시키는데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기 있는 고신대학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열린 지성

그러면 고신대학이 어떻게 여러분의 지성을 여는 과업을 수행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고신대학에서 겪는 경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믿기로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신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에 발전시키게 될 기독교적 교양(Christian liberal arts) 교육의 기초와 관점은 단순히 직업이나 직장을 위한 준비 그 이상의 의미를 줄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위치에 대한 사려깊은 관점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의 말씀과 이 세상,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주된 문명의 성취에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에 중요한 결단과 선택을 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해 줄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자신이 결단하도록 준비시키고, 더욱이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고신대학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생을 위한 준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애를 허락하는 한 계속 증진시켜야 할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유리한 직업을 갖도록 해주어 여러분을 즐겁게 해 줄 것이며, 의심할 여지없이 여러분의 부모를 즐겁게 해 줄 것입니다.

만일 고신대학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성을 열게 해 주며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고신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생애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대가 해야만 할 중요한 결정들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연과학의 영역에서조차 우리의 선택은 과학과 기술 그 위에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몇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텔레비전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에서는 텔레비전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광범위하고도 설득력있는 영향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가족관계, 개인관리(individual stewardship), 공동체적 가치의식등에 대한 전자매체의 영향은 개인이나 사회 공동체의 결단을 위해서 기독교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도덕적 문제들(moral issues)입니다. 이런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우리사회의 급속한 전산화(computerization)현상인데 이 점은 개인의 사적(私的) 권리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정보(information)가 곧 힘이라고 믿는 우리시대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간에 모종의 재결합 디 엔 에이(DNA) 연구에 대한 논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토론은 다양한 형태의 유전학적 연구를 촉진시키게 될 지도 모르는 연구업적에 대해, 많은 비과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도덕적 혹은 윤리적 토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Chernobyl)에서의 가공할만한 핵 폭발사건은 자연과학의 진보가 가져온

우리시대의 여러 영역들에 대해 기독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환기시켜준 최근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열거했습니다만, 본인은 고신대학 교육이 오늘 우리시대에 제기되는 이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 다 대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교육도, 심지어 탁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방면에서 전문가가 될 만큼 광범위하거나 세밀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교육이 고신대학교육의 목표일수도 없다고 봅니다. 도리어 고신대학 교육의 과업은 지성을 열게 하는 것(open minds)이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앞서 말씀드린 우리시대의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알도록 하는 일련의 교육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신대학 교육은 그 이상의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분명한 도덕적 선택이 매일 행해진다 할지라도 고신대학 교육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보며, 순간순간의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꽃향기를 맡아보십시오. 몇편의 시를 읽어 보십시오. 연주회에도 가보십시오. 매일의 신비로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위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가 왕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삶의 소중한 은총들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존재 그 이상의 삶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은 생성(becoming) 되는 것이며, 열려진 것(opening out), 부단히 흘러가는 것(flowing on)입니다. 삶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결정들과 문제들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삶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무관심하고 또 그것을 잊고 삽니다.

미국의 작가인 손튼 와일더(Thornton Wilder)는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그의 희곡 우리의 도시(Our town)에서 아래와 같이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 희곡에 보면 어린아이때 죽은 한 젊은 부인이 단 하루동안만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이 여자는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날로 그녀의 열여섯번째 생일날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것처럼 정다운 하루를 맞게 됐으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생의 경이로움을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바쁜 날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고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다. 모든 현세적인 삶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슬퍼진 그녀는 결국 다시 돌아가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별의 말이 이것입니다.

안녕, 똑딱거리는 시계야

그리고 뜨거운 커피와 새로 다려진 옷가지야……

그리고 드러눕고 다시 일어나는

오 지구야, 너는 사람들이 너를

깨닫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녀는 무대감독에게 돌아가서 묻습니다.

말해주세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의미를 알거나 하나요?
한순간 한순간을 살 뿐입니다.
아니야. 그는 대답했네……. 아마도 시인이나 성자들,
아마도 그들중 어떤이는 깨닫겠지.

그리고 나서 그녀는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따위 인간들이야, 다 눈먼 사람들뿐…….³⁾

저는 이와 같은 점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보편적인 고뇌가 되고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닫혀진 마음(closed minds)을 가지고 사는 눈먼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실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 너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의 구름사이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수백년의 생애나 살 것처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에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눈먼것(blindness)과 폐쇄된 지성(closed-mindedness)과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때때로 여러분들은 엄격하고 강압적인 모습으로 비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는 책을 읽도록 요구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나 밀턴의 실락원(Paradise lost)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들이나 한 두시간의 노력으로는 여전히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을 현미경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백혈병이나 에이즈(AIDS)의 치료법을 발견하도록 부르시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견지하지 않는 입장을 변호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또 토론의 논리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평가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좌절과,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신대학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축적됨에 따라 이러한 고귀한 활동에 의해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에 심기워진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성을 열고 또 지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삶 본래의 즐거움과 장엄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3) Thornton Wilder, *Our town*, Harper & Row, 1938, pp.100-101

결 론

고신대학은 여러분들의 마음 혹은 지성을 여는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 중요한 한 부분으로 참여합니다. 고신대학은 구별된 이념을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세류를 따라”(go with the flow)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성을 열고 지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또 이 소명에 응답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명한 기독교적 지성을 추구하는 일을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고신대학 교육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로운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도구와 비전과 헌신을 제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선택된 일이라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해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고신대학에서 시작하는 이 일을 여러분의 전생애 과정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본인은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미 고신대학을 졸업한 분들과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교제는 일차적으로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사람들의 교제라기 보다는 도리어 정신적 상태, 곧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이상(vision)과 사명을 지닌 그러한 정신적 상태를 지닌 열린 지성으로 교육받은 졸업생들과의 교제입니다. 이 이상은 세계, 곧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the world as it is) 세계의 바른 모습(as it should be)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 곧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이해를 포함합니다. 이 사명은 이 세계와 여러분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is)에서 바람직한 모습(should be)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끊임없는 노력인데 이 사명은 본인이 생각하건데 칼빈대학 교수였던 고 헨리 질스트라(Prof. Henry Zylstra) 교수의 말씀속에 잘 표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자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즉 크리스찬들은 생의 모든 영역, 곧 과학, 예술, 사회, 그리고 정부가 그리스도의 왕적통치의 표현으로써의 기독교적 원리와 목적하에 놓이도록 해야 한다.⁴⁾

본인은 고신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 동일한 교제와 이상과 사명에 동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4) Henry Zylstra, *Testament of vision*, Wm. B. Eerdmans Pub. Co., 1958, p. 93